역사 웹진 자료조사

* 1955~1965

1. 1960년 3.15 부정선거:

* 정의: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에 의해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 김주열 사건: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난 김주열은 1960년 당시 마산 상고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해 마산 시내에서 벌어진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한 이후 실종되었다. 그런데 실종된 지 27일이 지나서 마산 중앙 부두 앞바다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진 김주열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 후 경찰의 소행으로 밝혀지자 학생과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됨

1. 1960년 4.19 혁명

*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4월 18일 고려대학교의 3천여 명의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았고, 일부 학생들은 큰 부상을 입었다.
*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다음 날인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정권은 총칼을 앞세운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상[계엄령](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471)까지 선포하였다. 그리고 4월 25일 이승만 정권의 만행에 분노한 서울 시내 각 대학 교수단 300여 명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생, 시민들과 시위에 동참하였다. 여기에 4월 26일 전날에 이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였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1. 1961년 5.16 군사정변

* 배경: 제2공화국의 출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들어섰다. 3·15 부정 선거의 주역들은 구속되었으며,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헌법을 개정해서 새 헌법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새로 구성된 국회는 나랏일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갈 국무총리로 장면을 선출하여 장면 내각을 출범, 제2공화국의 출발을 알렸다. 장면 내각은 경제 발전과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1년여에 불과한 제2공화국 시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했던 격동의 시기였다. 한편에서는 제2공화국의 이러한 상황을 ‘혼란의 시대’로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혼란한 사회상을 바로잡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남몰래 쿠데타를 꾸몄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이 반공, 친미, 구악 일소, 경제 재건을 명분으로 삼아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군인들이 정치를 담당했어. 이들은 반공을 구호로 내걸고 경제 재건과 정치 안정 및 사회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 투표에 부쳐서 확정, 민주 공화당을 창당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에는 사회가 안정되면 다시 군대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민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함. 그리고는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윤보선을 15만 표 차로 제치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1995~2005

1. 1995년 6월29일 상품백화점 붕괴

*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서울특별시](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서초구](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B4%88%EA%B5%AC)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D%92%8D%EB%B0%B1%ED%99%94%EC%A0%90)이 붕괴한 사건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며, 인근 [삼풍아파트](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82%BC%ED%92%8D%EC%95%84%ED%8C%8C%ED%8A%B8&action=edit&redlink=1), [서울고등법원](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 [우면로](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A%B0%EB%A9%B4%EB%A1%9C&action=edit&redlink=1) 등으로 파편이 튀어 주변을 지나던 행인 중에 부상자가 속출해 수많은 재산상, 인명상 손해를 끼쳤다. 그 후 [119구조대](https://ko.wikipedia.org/wiki/119_%EA%B5%AC%EC%A1%B0%EB%8C%80%EC%9B%90), [경찰](https://ko.wikipedia.org/wiki/%EA%B2%BD%EC%B0%B0), [서울특별시](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대한민국 국군](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5%B0), [정부](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 [국회](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D%9A%8C)까지 나서 범국민적인 구호 및 사후처리가 이어졌다.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이며 6명은 실종되었다. 피해액은 약 2700여 억 원으로 추정된다.

1. 1997년 IMF사태(1997년 12월 3일~ 2001년 8월 23일)

* [국가부도](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6%80%EB%8F%84)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이 [IMF](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D%86%B5%ED%99%94_%EA%B8%B0%EA%B8%88)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1997년](https://ko.wikipedia.org/wiki/1997%EB%85%84) [12월 3일](https://ko.wikipedia.org/wiki/12%EC%9B%94_3%EC%9D%BC)에 체결한 사건이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하였다.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지만,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다.
* 원인: 지급준비 정책의 변화,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 환율 운용 정책 실패, 금융기관의 부실, 대외금융세력의 공격
* 금모으기 운동: [국민](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들이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9D%BC)([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에 자발적인 희생정신으로 내어놓은 운동이다. 당시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은 [외환 부채](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9%B8%ED%99%98_%EB%B6%80%EC%B1%84&action=edit&redlink=1)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전국 누계 약 351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https://ko.wikipedia.org/wiki/%ED%86%A4)의 [금](https://ko.wikipedia.org/wiki/%EA%B8%88)이 모였다. 그것은 약 21억 3천달러어치의 [금](https://ko.wikipedia.org/wiki/%EA%B8%88)이었다

1. 2000년6월15일남북정상회담(6.15선언)

*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대통령](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D%86%B5%EB%A0%B9) [김대중](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8C%80%EC%A4%91)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국방위원장](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_%EA%B5%AD%EB%B0%A9%EC%9C%84%EC%9B%90%ED%9A%8C) [김정일](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BC)이 [평양](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C%96%91)에서 [2000년](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 [6월 13일](https://ko.wikipedia.org/wiki/6%EC%9B%94_13%EC%9D%BC)부터 [6월 15일](https://ko.wikipedia.org/wiki/6%EC%9B%94_15%EC%9D%BC)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한 회담이다.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이었고 회담 결과로 마지막날 [6·15 남북 공동선언](https://ko.wikipedia.org/wiki/6%C2%B715_%EB%82%A8%EB%B6%81_%EA%B3%B5%EB%8F%99%EC%84%A0%EC%96%B8)이 발표됐다. 미국의 [AP](https://ko.wikipedia.org/wiki/AP_(%ED%86%B5%EC%8B%A0%EC%82%AC))통신은 2000년 [12월 25일](https://ko.wikipedia.org/wiki/12%EC%9B%94_25%EC%9D%BC) '2000년 세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는데 이 남북정상회담은 5위를 차지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2%B0%EA%B0%80%EC%A1%B1_%EC%83%81%EB%B4%89), [금강산 관광](https://ko.wikipedia.org/wiki/%EA%B8%88%EA%B0%95%EC%82%B0_%EA%B4%80%EA%B4%91),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F%AC%EC%B8%A0)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지속됐으며, 북한은 [일본](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 [미국](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김정일의 조기 [서울](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 방문도 예견됐으나 국제 정세의 급변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1948년](https://ko.wikipedia.org/wiki/1948%EB%85%84) [한반도](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B0%98%EB%8F%84)가 분단된 이후로, 두 당국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8C%80%EC%A4%91)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https://ko.wikipedia.org/wiki/%ED%96%87%EB%B3%95%EC%A0%95%EC%B1%85)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와 생애 전반에 대한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B2%A8_%ED%8F%89%ED%99%94%EC%83%81)을 받았다.
*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 [6월 15일](https://ko.wikipedia.org/wiki/6%EC%9B%94_15%EC%9D%BC) [평양](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C%96%91)에서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의 [김대중](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8C%80%EC%A4%91)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의 [김정일](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C%A0%95%EC%9D%BC)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B%B6%81%ED%86%B5%EC%9D%BC)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https://ko.wikipedia.org/wiki/%EB%82%AE%EC%9D%80_%EB%8B%A8%EA%B3%84%EC%9D%98_%EC%97%B0%EB%B0%A9%EC%A0%9C)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C%A0%84%ED%96%A5%EC%9E%A5%EA%B8%B0%EC%88%98)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6. 2002 한일 월드컵

* 17번째 FIFA원드컵 대회로 2002년 5월 31일~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에서 열린 첫 FIFA 월드컵이었다.
* 우승: 브라질, 준우승: 독일, 3위: 터키, 4위: 대한민국
*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본선 진출을 물론 4강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시민들은 붉은색 옷을 입고 서울 광화문, 시청의 40만 명 길거리 응원전을 주도했다. 총 7차례 경기를 하는 동안 연인원 2400만 명의 붉은 악마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